

#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무관 노상추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

문숙자 지음, 너머북스, 2009, 251쪽

##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고문헌관리학 전공  
ckmok@hanmail.net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5년에 노상추(1746-1829)라는 조선시대의 한 무관이 쓴 일기를 발굴, 간행하자 학계에서는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68년 동안에 쓴 방대한 일기라는 점에서도 그러하였지만 무관이 쓴 일기라는 점에서 우선 주목을 끌었다. 노상추는 경상도 선산에 세거하던 안강노씨(安康盧氏)으로 17세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84세에 사망하기 이틀 전까지 썼다. 아버지 명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 그것은 이 일기가 개인의 일기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일지이기도 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그가 무과에 급제하기 이전에는 선산에서 살았고 무관으로 임명되어서는 한양과 변방의 여러 군진(軍鎭)에 머물렀기 때문에 선산을 비롯하여 한양과 변방지역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과 풍속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노상추가 쓴 일기는 대부분 한 책에 한 해 분량의 일기가 쓰여 있다. 그러나 일기의 양이 많을 때에는 한 해의 일기가 두 책에, 이와 반대로 양이 적을 때에는 두 해의 일기가 한 책에 쓰여 있다. 다만 전래과정에서

일기의 일부가 분실되어 24세, 30세, 38세 때 쓴 일기가 빠져 있으며 59세에서 62세, 그리고 72세에서 76세까지의 일기가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1책의 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모두 탈초·정서하여 4책으로 간행하였다.

문숙자는 이처럼 방대한 양의 일기를 살살이 살펴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라는 연구서를 간행하였다. ‘무관 노상추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이라는 부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노상추의 일기를 통하여 조선후기 한 무관의 생애 또는 일상을 복원한 것이다. 우선 그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일기와 그 주인공들
2. 가족의 탄생
3. 꿈과 인생
4. 가계경제와 생업
5. 사고와 세계관
6. 은퇴하여 다시 집으로

모두 6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는 다시 2-4장으로 세분된다. 1부 「가족일기와 그 주인공들」을 예로 들면 <노씨가가의 실록, 한 세기의 기록>과 <일기의 주인공 3대>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다시 3-5절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1장 <노씨가가의 실록, 한 세기의 기록>은 ‘일기라는 제목의 가족사’, ‘일기의 저자와 주인공’, ‘인생의 굴곡과 일기의 내용’, ‘어떻게 써내려갈까’ 등 4절로 구성되어 있다. 2장 <일기의 주인공 3대>는 ‘정신적 지주, 조부 죽월공’, ‘가정적인 아버지’, ‘장남 아닌 장남’ 등 3절로 이루어져 있다. 목차가 매우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씨가가의 실록, 한 세기의 기록>에서는 노상추의 일기를 왜 개인의 일기로 판단하지 않고 노씨 한 가문의 실록이며 한 세기의 실록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한다. 일기라고 하면 대부분 개인이 쓴 은밀한 사생활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노상추의 일기는 이러한 일기와는 다르다. 노상추는 아버지인 노철의 명을 받아 아버지가 쓰던 일기를 대를 이어가며 썼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일기는 자연스럽게 개인의

경험을 쓴 일기가 아니라 가족을 대표해서 가정과 가문에 관련한 대소사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종의 가족일지가 되었다.

그러나 노상추의 일기가 여타의 일기에 비해 가족일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의 변화에 따라 일기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청년기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선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쓴 일기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활동과 건강상태, 선산과 상주 등에 살던 가족 이야기 등이 많았다. 그러나 붓을 던지고 무예를 익히기 시작한 후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자주 왕래하면서부터는 일기의 내용이 크게 변화하였다. 더군다나 그가 무과에 급제해서 벼슬살이를 한 이후에는 관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중앙에서 벼슬을 할 때에는 주로 왕과 조정의 소식을 기록하였으며 지방관이나 무장으로 변방에 근무할 때에는 해당 지방과 변방의 사정과 풍속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60대 후반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손자와 증손자 등 가족과 가문에 대한 기록이 다시 크게 늘었다. 인생 굴곡에 따라 일기의 내용도 그에 맞게 변화하였던 것이다.

일기라고 하면 매일매일 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며칠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지난 일을 정리하며 기록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1812년 8월 24일의 일기에 “객지에서 바쁜 생활 때문에 하루 일을 날마다 기록하지 못하고 추후에 기록한다. 따라서 오늘 일은 상세히 기억해내지 못하겠다”고 직접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 일기에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만을 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후손들이 뒷날 이를 읽고 참고하도록 의도적으로 기록한 내용도 있었다. 노상추는 어느 날 친척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 자신이 본 의례 절차를 상세히 기록한 다음 ‘훗날 족친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므로 기록한다’고 솔직히 밝히고 있다. 후손들이 자신의 일기를 읽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쓴 것이었다. 본인도 조상의 일기를 자주 살펴보았다.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가 참고할 일이 있어서 선조 가운데 한 명인 노경임의 일기를 살펴보고는 빠진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고 토로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저자가 지적한 일기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은 일기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일기라고 하면 개인의 사적인 내용을 매일매일

기록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먼저 떠올리는데 조선시대인들이 쓴 일기는 날마다 기록한 것이라기보다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후 어느 한 시점에 한꺼번에 기록한 것이며, 후손들이 읽을 것을 전제하고 썼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일기의 주인공 3대〉에서는 일기에 주로 등장하는 노상추의 조부 노계정과 부친 노철 그리고 노상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일기의 여러 곳에서 노계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인 노철보다 할아버지인 노계정이 노상추의 인생에 더욱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노계정은 31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34세에 별군관으로 벼슬을 시작한 후 무관직을 두루 거치고 지방관과 변방 지역의 무장을 역임하다 57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죽월헌이라는 정자를 짓고 만년을 보내었다. 자신과 유사한 삶을 살아서 그랬는지 그는 조부를 평생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조부는 심지어 사후에도 그의 꿈에 자주 나타나 여러 가지 사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었다.

아버지 노철은 매우 가정적인 인물이었다. 노상추가 혼인할 때 직접 그를 데리고 신부집으로 갔으며 하회로 시집간 딸의 신행에도 몸소 따라 나섰다. 조상의 제사와 손자의 보육 등 집안일 하나하나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불행하였다. 세 번 혼인하였지만 세 아내와 모두 사별하였다. 자신의 뒤를 이어 집안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큰아들 또한 스물넷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그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노상추에게 모든 집안일을 일임한 채 선조의 밭자리와 오래토록 세거할 집터를 물색하느라 도개 등지를 돌아다녔다.

노상추는 위로 두 명의 형을 둔 셋째였다. 그런데 맏형이 24세에 요절하고 중형마저 17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자 셋째인 그가 장남 노릇을 해야 했다. 장남이 아니면서도 장남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맏형이 남기고 간 아들 훈육도 자신이 챙겨야 했으며 홀로된 형수도 그가 돌봐야 했다. 조선시대 어느 집안이나 다 그러했듯이 집안을 대표하는 가장에게 가정을 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일들은 항상 무거운 짐이 되었다. 더군다나 노상추처럼 삼남이 갑자기 장남 아닌 장남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담감이 훨씬 더했을 것이다.

2부 「가족의 탄생」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결혼〉, 〈부부관계〉, 〈또

하나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에서는 조선시대 출산에 대해 주목하였다. 출산은 가족의 성원을 충원하는 과정이었지만 출산 당사자인 여성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생명을 건 모험이었다. 임신 도중이나 출산 직후에 사망하는 여성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노상추와 노철은 공교롭게도 모두 세 번 혼인하고 세 번 사별하였는데 아내가 대부분 출산 도중이나 출산 직후에 사망하였다. 노철의 첫 아내 완산최씨는 큰 아들 상식을 낳은 후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둘째 아내 풍양조씨는 여섯 번째 딸을 낳고 일주일 만에 죽었다. 노상추는 자신보다 열여덟 살이나 어린 여동생을 낳은 직후 어머니 풍양조씨가 사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러한 노상추가 후에 같은 이유로 자신의 두 아내를 잃어야만 했으니 그 경험은 참으로 끔찍하였을 것이다.

아내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어미를 잃은 어린 자식들 또한 웬일인지 오래 살지 못하였다. 아내를 잃어가면서까지 얻은 아이들마저 얼마 안 되어 사망하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모든 것이 진정 하늘의 뜻인가를 반문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18세기 후반에 조선사회에서 가족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의 생명을 잇아가면서까지 힘들게 출생한 아이는 커다란 축복으로 여겨졌다. 물론 순산을 해서 어미와 아이 모두 건강하거나 낳은 아이가 사내라면 이는 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 노상추의 일기에 나타난 출생 관련 기록을 보면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때보다 손자나 손녀를 낳았을 때 더욱 좋아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무덤덤하게 사실만을 썼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쁜 소회를 주저리주저리 기록하였다.

일기와 족보 또는 호적 등을 비교해보면 태어나서 흔적 없이 사라진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많았다. 족보에는 결혼해서 자녀가 없을 때에는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호적에는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등재되지 못하였다. 그나마 일기에만 태어나고 사망한 사실들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일기에서 확인되는 노상추의 자녀는 12명인데 이 중 족보에 등재된 자녀는 단지 4명뿐이었다. 2/3에 해당하는 8명의 흔적은 일기 이외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흔적 없이 사라진 이들에 대해 역사는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를 저자는 묻고 있다.

<결혼>에서는 노상추의 누이가 하회의 명문가로 시집가는 과정과

노상추 자신의 세 차례 혼례과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혼인 상대 고르기 전략에 대해 주목하였다. 누이의 시집인 하회유씨는 설명이 필요없는 명문가였다. 노상추의 둘째 부인도 이곳에서 왔고 사위도 이곳 출신을 맞이했다. 하회와는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양반 여성들에게 혼인은 단 한 차례만 허락되었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아내와 사별하면 재혼을 반복하였는데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상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사돈관계를 맺었다. 노상추는 조카 익증의 혼처를 물색하고서 지인을 통하여 혼담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 곳에 수소문해보니 상대의 집안이 별족도 아닌 태다 큰 부자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혼인을 취소하였다. 한편 가난한 양반 가문에서는 돈 많은 상민의 집으로 딸을 시집보내고 그 사돈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풍습이 있었다. 노상추는 돈에 눈이 멀어 격이 떨어지는 집안과 혼인하는 당시의 세태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양반이라는 지위를 과는 행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부부관계〉에서는 노상추가 했던 세 번의 결혼을 통하여 조선시대인들의 혼인생활을 살펴보았다. 노상추의 첫 번째 아내는 장부 같은 품모를 지닌 강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겨우 3년을 살고 아이를 낳다 사망하자 뒷자리를 널리 물색하여 명당에 잘 묻어주었다. 두 번째 아내는 전실 부인의 제사도 정성을 다해 지내주는 전형적인 부덕의 소유자였다. 6년 동안 함께 살았으나 노상추가 집안일을 위해 상경한 사이 혼자 아이를 낳다 사망하였다. 셋째 아내를 얻은 후 그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고 또 벼슬살이를 시작한 후로는 아예 아내와 떨어져 살았다. 그래서 떠나는 아내의 임종조차 못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양반 남성들은 여러 차례 결혼할 수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에도 50세가 넘으면 다시 혼인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홀로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첩과 함께 살았다. 조선시대의 남성과 여성이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기간과 흠아비 또는 과부로 살던 기간을 비교해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은 20대에 이미 두어 차례 혼인을 한 데 비하여 여성은 과부가 되면 재혼은 아예 상상도 못하였다. 양반 여성들에게는 오로지 한 번의 기회만 주어져

서 죽을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절하며 살아야 했다. 따라서 부부가 해로한다는 것은 어쩌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첩과의 생활을 부부관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일상사 연구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저자는 첩을 '또 다른 동반자'로 규정하였다. 50대 중반에 세 번째 아내와 사별한 노상추는 84세까지 30여 년 동안을 혼인하지 않고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첩과 함께 살았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조선사회가 적서의 문제로 몸살을 앓는 것을 직접 목도했건만, 여건만 되면 첩을 얻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노상추가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할아버지 노계정이나 아버지 노철 및 자신까지도 모두 첩을 데리고 살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조카도 역시 첩을 들이고 살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첩과 그 소생인 서자는 처와 적자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고 병들어 몸져누운 남편과 아버지 곁에서 시중하고 간호하며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은 대부분 첩과 서자였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또 하나의 관계〉에서는 기생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노상추는 무관이고 변방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생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기생은 원래 변방에 근무하는 관직자를 위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상추는 비록 무관이긴 하지만 양반의 고장인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생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여겨 관기를 데리고 사는 동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변방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생과의 관계가 긴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에서 온 무관과 변방 기생과의 관계는 대개 한시적이어서 무관이 체직되어 떠남과 동시에 그들의 인연은 끝이 났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소생이 있을 경우, 그 인연은 결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노상추는 갑산에서 석벽, 삭주에서 옥매라는 기생과 절친하게 지냈다. 석벽과의 사이에서는 딸도 낳아 서울까지 데리고 왔으나 6세에 사망함으로써 그 인연도 끝나고 말았다.

3부 「꿈과 인생」은 〈붓을 버리고 무예의 길로〉, 〈과거합격과 관직의 길〉, 〈내 뒤를 이은 동생과 아들〉, 〈피로 맺은 자식, 의리로 맺은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붓을 버리고 무예의 길로〉에서는 어린 나이에 학문에 뜻을 두고 매진하던 노상추가 붓을 던지고 무관으로 진출한 경위를

자세히 서술하였다. 노상추는 그의 조부의 전철을 그대로 따랐다. 그의 조부도 문과 공부를 하다가 진로를 무과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그의 가문이 전형적인 무반 가문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로를 바꾼 현실적인 이유는 경제력이었다. 문과에 급제할 때까지 오랜 기간 학문에 전념하고 또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에 오가며 드는 비용을 가난한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노상추는 23세에 붓을 던지고 무예를 익히기 시작하였다. 26세에 무과 시험장을 구경하고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상경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인을 방문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두 차례나 더 상경하였다. 그가 시험에 본격적으로 도전한 것은 32세 때이며 무과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은 34세 때의 일이다.

〈과거합격과 관직의 길〉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이후 관리로서의 생활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창방 다음날, 사은례를 마치고 서울에 머무는 친지들을 두루 방문해 합격 인사를 한 후 곧바로 고향으로 향했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도문연을 크게 열어 친지들의 축하를 받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어른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물론 여기에는 외가와 처가의 어른들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각지에 있는 조상 묘소를 찾아 성묘한 후 지역의 유명인사를 봉안한 서원과 사우도 찾아다니며 봉심하였다.

무과에 합격했지만 곧바로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관직에 오른 것은 급제 후 4년이 지나서였다. 그는 그 사이 지인들로부터 노자를 빌려 한양과 고향 집을 여러 차례 오가며 모든 연망을 동원하여 관직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39세에 비로소 금군으로 입직하게 되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시험에 응시해서 두각을 나타내어 드디어 무점에 임명되었다. 그 후 그는 줄곧 내외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66세에 가덕첨사를 마지막으로 27년간의 관직생활을 마감하였다.

〈내 뒤를 이은 동생과 아들〉에서는 노상추의 뒤를 이은 동생 상억과 아들 익엽의 무과 급제와 무관직 역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노상억이 노상추를 따라 과거 시험길에 동행한 것은 그의 나이 27세 때였고 본격적으로 무과 시험에 응시한 것은 30세부터였다. 과거에 합격한 것은 그로부터 13년 후, 무려 14번의 시험을 치르고서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불행하게 관직은조차 따라주지 않았다. 액외금군과 대참군을 거쳐 51세가 되던

해에 겨우 황해도 봉산군 우초군병이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6년 후 노상억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 그의 도전과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다.

노상추의 장남 익엽도 25세에 붓을 던지고 무과에 도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한양으로 아버지를 찾아와 유능한 스승을 물색하여 활 쏘는 의례를 익혔다. 익엽이 무과에 급제한 것은 그의 나이 35세에서 38세 사이이다. 이때의 일기가 전해오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언제 무과에 합격했는지 알 수 없다. 그가 수문장에 임명된 것은 45세인 1814년의 일이었다. 그 후 훈련주부를 거쳐 중추부 도사로 자리를 옮긴 후 얼마 안 되어 흥덕현감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57세였다. 이때 노상추는 손자, 즉 익엽의 아들까지 데리고 선산에서 흥덕으로 나들이를 했다. 자신의 조부 노계정이 흥덕 인근의 순창군으로 유배당했을 때 조부를 따라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며 그 길을 갔던 것이다.

〈피로 맺은 자식, 의리로 맺은 자식〉에서는 조카 정엽과 자신의 막내아들 승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조카 정엽은 큰 형의 아들로 장손이었다. 그가 일곱 살 때 아버지를 여의자 불과 열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숙부 노상추가 아버지 노릇을 했다. 특히 정엽의 글공부를 독려하여 열한 살에 사략을 다 읽고 통감을 시작할 정도로 공부에 대한 진도가 빨랐다. 그러나 정엽은 점차 공부를 게을리 했고 그때마다 노상추는 체벌까지 하면서 채찍질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가 체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부자와 같던 사이가 정엽이 점차 성장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만년에는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하였다. 그래도 노상추는 감정을 자제하며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하였다.

노상추의 아들 익엽 역시 처음부터 장남은 아니었다. 그의 위로 두 명의 형이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모두 사망하자 마치 노상추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장남 아닌 장남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노상추에게는 늘 눈에 밝히는 아들이었다. 노상추가 훈련주부로 이배되어 갑산진에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익엽이었다. 익엽이 선산에서 일부러 상경하여 조정으로 복귀하는 자신을 마중해주었던 것이다. 익엽이 자신처럼 붓을 던지고 무과 준비에 돌입한 후 한양으로 올라와 무예를 연마하자 한동안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노상추는 무척 기뻐하였다. 얼마 후 익엽이 아들을 낳아 그에게 안겨주었을 때에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익엽은 그 후에도 아이를 여럿 낳아 지손이 적어 대를 잇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던 노상추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해주었다.

노상추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만년을 보내던 시절, 그를 가까이 모신 것은 아들처럼 정성을 들여 키운 조카 정엽도, 언제나 든든한 믿음을 준 장남 익엽도 아니었다. 서출인 막내 승엽이었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서 그런지 그를 대하는 노상추의 태도는 정엽이나 익엽을 엄격하게만 대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마치 손자 대하듯 부드럽고 애정 어린 시선만 가득했다. 승엽은 늙고 병든 노상추의 곁에서 온갖 시중을 들며 병간호를 하였다. 증세가 위독해지면 명의를 쫓아다니며 약 처방을 받아오고 전라도 흥덕에서 수령을 하는 익엽에게 급하게 기별을 하였다. 그는 가장 오래도록 노상추 곁에서 남아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부자관계를 유지하였다.

4부 「가계경제와 생업」은 〈과행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공명을 얻다〉, 〈노비, 가족과 재물의 경계〉, 〈농사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다〉로 구성되어 있다. 〈과행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공명을 얻다〉에서는 조상으로부터 적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은 노상추가 오랜 동안 과거시험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대신 무관으로 명성을 얻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노상추는 26세에 무과에 도전하기로 작정하고 관광을 시작하였다. 무과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세 차례나 미리 상경해서 과거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무과에 응시하여 한양과 고향을 오르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하다 35세에 드디어 무과에 합격하였다. 10년 동안 그는 한양을 오르내리는 노자와 한양 체재비를 마련하느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거의 다 팔아치웠다. 그러나 관직에 임명된 이후에도 그의 경제 여건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조선시대 관리의 녹봉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재산을 잃은 대신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으로 임명된 후 내외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여 가문의 명성을 드높였다.

〈노비, 가족과 재물의 경계〉에서는 대대로 집안에서 부러오던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재물이요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한 재산이었다. 노비와 상전은 군주와 신하로 비견될 만큼 신분상의 엄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때때로

가족으로 인식되었다. 노상추의 집안에 있던 계집종 분진은 증조부 때부터 부리던 세전비(婢)였다. 그녀는 증조부와 조부 및 아버지 3대를 섬겼고 노상추 만형의 유모 노릇까지 하며 장성할 때까지 그를 키웠다. 만형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정엽의 집에 있다가 78세에 돌림병으로 사망하였다. 정엽까지 무려 5대를 상전으로 섬긴 셈인데 그녀가 죽자 집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녀는 계집종이었으나 한편으로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노비는 양반들에게 필수적인 존재였다. 노비 없는 양반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양반들은 노비가 제공하는 노동력에 의존하여 온갖 집안일을 다 했다. 농사를 짓고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며 밥하고 빨래를 하는 것까지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다. 외출할 때에도 이들이 동반하였으며 가족 간에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이들이 담당하였으니 생활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었다. 한양이나 지방에서 벼슬살이를 할 때조차도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상전의 명령에 복종하는 노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천성이 게으르거나 일을 하기 싫어하는 노비가 있었고 자유가 없었던 탓에 틈만 나면 도망치려는 노비도 있었다. 이러한 노비들은 상전에게 두통거리일 수밖에 없었다. 노상추의 집안에도 종종 도망치는 노비들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연망을 이용하여 이들을 잡아왔다. 이와 같이 노비는 한편으로는 생활의 동반자요 가족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사환하는 관계였다.

노비의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노비도 다른 신분처럼 혼인하고 자식을 낳지만 서로 다른 상전에게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다. 상전들이 내어다 팔면 그 가족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또 외거노비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상전이 특별히 돌보아주지 않으면 먹고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정한 가족을 이루고 살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들에게는 부자지간의 정도, 가족 간의 유대도 사치일 뿐이었다.

〈농사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다〉에서는 양반의 가계가 기본적으로 농사에 의존하였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노상추의 집안은 대대로 무관을 배출했지만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농사에 있었다. 관리들의

녹봉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는 일찍 사망한 형님의 가족까지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쪼들렸다. 그래서 그는 관리로 있으면서도 항상 고향의 농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일기에 농사에 관한 기록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 어느 경우에는 고향의 집에 머무르는 아들에게 농사에 대해 일일이 편지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그는 고향의 물가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그해 농사의 풍흉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부 「사고와 세계관」은 〈꿈과 욕망 사이〉, 〈자유로운 성, 경직된 사고〉, 〈소회와 세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꿈과 욕망 사이〉에서는 일기에 자주 나타나는 꿈이 그의 욕망을 표출하는 기제이고 닥쳐올 운명의 조짐을 보여주는 미래예시적인 것이며 사무치는 그리움에 대한 표현이라 보고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국왕과 대면하는 꿈을 자주 꾸었는데 이는 출세에 대한 욕망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어린 나이부터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노상추는 꿈에서 조부 노계정과 아버지 노철을 자주 뵈고 혼사나 산송과 같은 집안의 대소사를 상의하였다. 가정의 여러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꿈에서 조상들과 상의를 하였는데 그에게 꿈은 이와 같이 생과 사의 경계 없이 조상 몇 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한 공간이었다. 고향을 떠나 변방에서 무장으로 지낼 때에는 가족과 만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그리움의 표출이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꿈은 언제나 그에게 활력소로 작용했다.

〈자유로운 성, 경직된 사고〉에서는 일기에 나타나는 사건과 사고를 소개하였다. 인동부사가 아끼던 기생이 어느 날 가마를 탄 채 향사당 앞을 지나치려다 이를 저지하던 좌수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런데 관에서 이 자그마한 소동을 거둬들여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무려 대여섯 명이나 죽는 사건으로 비화하고 말았다. 양반을 능멸했다는 죄목으로 기생과 기생 오라버니가 장을 맞은 후 사망하자 매를 때리도록 지시한 수령은 파면되고 향사당의 임원 대여섯 명이 줄줄이 잡혀가 이들도 장을 맞고 사망하였다. 한편 북병사 정관채의 며느리가 어느 한 장용위 병사와 간통을 한 사건이 드러나 당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다. 내로라하는 고관의 며느리가 신분이 천한 무사와 간통을 했으니 떠들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처벌은 크게 달랐다. 장용위 무사는

몇 대 맞고 풀려났는데 정관채의 며느리는 관비가 되어 제주로 보내졌다. 조선은 이와 같이 양반 출신인 여성에게 더욱 엄격한 성도덕을 요구하는 사회였다.

〈소회와 세계관〉에서는 노상추가 일기의 곳곳에 서술한 간략한 소회를 통하여 그의 세계관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만큼은 슬프거나 아쉬운 감정보다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출사 내력을 돌아보면서 천명을 입어 관직에 나가고 세의에 힘입어 관직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적서에 관해서는 적자 위주의 매우 완고한 사고를 하고 있었다. 그는 사농공상 중에 농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문필로 사람을 재난에 빠뜨리는 것은 상인이 이익을 추구하여 불러일으키는 불행보다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농촌 출신답게 화폐를 혁파해야 부자들이 돈 대신 곡물을 축적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 당쟁을 비판하였지만 그것은 남인 인사가 잘 기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의 불만일 뿐이었다. 그도 철저하게 당시의 ‘영남’이라는 지역에 갇힌 세속적인 인물이었다.

6부의 「은퇴하여 다시 집으로」는 〈종족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집〉이라는 공간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족 그리고 지역공동체〉에서는 노상추가 관여했던 씨족 모임인 종계와 지역공동체인 동회와 향회를 소개하고 있다. 노상추와 그의 동생 상근 및 조카 정엽 등은 종계와 종회에 꾸준히 참여하여 종중의 대소사에 간여하였다. 노상추는 송계에도 참여하였는데 마침 송갯날 살인사건이 벌어져 그가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그는 성곡동회와 문동동회에도 참여하였다. 부친인 노철은 상임을 역임하는 등 동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일기를 보면 노상추의 삶이 서민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강고한 신분제 사회 아래 혜택받은 양반 신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집〉이라는 공간과 가족에서는 노상추 가족의 이거와 세거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양반이라면 대부분 한 지역에 대대로 거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정착 이전에는 살 만한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거를 하였다. 노상추의 아버지 노철도 누이동생에게 의지하여 살 생각으로 선산에서 운곡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운다. 운곡은 노상추의

외가가 있던 곳인데 이사하려는 집은 27칸짜리 기와집이었다. 외가의 친지들이 있던 동네로 이거하였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갈등은 없었지만 이곳에서 4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다. 이곳으로 이사하자마자 노상추의 고모, 첫째 아내, 생모와 계모 등이 연이어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가화가 끊이지 않는 데다 가택이 길하지 않다는 술사의 말을 듣자 곧 도개로 이사하였다. 도개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만족스러워 그곳에 오래도록 살 집을 지었다. 집터는 할아버지가 집을 지었던 자리였다.

그러나 그는 30대 초반에 우곡의 월평으로 이거하기로 결정하고서 혼자서 먼저 그곳으로 이사하였다. 도개의 생활에 만족했던 그가 갑자기 월평으로 이거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며칠 후 권속이 모두 이거하자 그는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월평을 ‘화림’으로 바꿔 불렀다. 화산의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도림의 들판이라는 뜻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에 합격하고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와 같이 노씨 일가는 한곳에 오래 세거했지만 한 집이 아닌 고향 땅 가까운 지역의 여러 집을 옮겨 다니며 때로는 같이 살고 때로는 분가하며 살아왔다.

만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는 그가 젊은 시절에 지은 집과 종가, 별업이 있었다. 마음의 안식을 주던 미봉사와 도리사라는 사찰도 인근에 있었다. 그리고 중년 이후부터 그를 항상 따라다니던 막내아들 승엽과 첩 김씨도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상은 문숙자가 쓴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의 내용을 각 장별로 파악해본 것이었다. 이제 그의 저서가 일기 연구에서 이론 크고 작은 성과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조선시대 연구자들은 일기라고 하면 곧바로 『미암일기』나 『쇄미록』 또는 『묵재일기』 등을 떠올린다. 이 일기들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굴하여 학계에 제공한 것인데 대부분 10년 내외 아니면 2-3년의 짧은 기간 동안의 기록이었다. 이에 비해 『노상추일기』는 6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일기이며 그 내용도 매우 방대하다. 또 『미암일기』 등은 문신 또는 문사가 쓴 것이었음에 비해 『노상추일기』는 무관이 쓴 것이다.

따라서 『노상추일기』에 대한 연구는 이전의 일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연구는 대부분 한두 주제를 가지고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정사(正史)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점들을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비해 저자는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일기에 나오는 몇몇 자료를 발췌해서 소개하는 종래 연구 방식과는 달리 일기 전체를 통독하고 음미하여 거기에서 배어나오는 조선후기의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저자는 이를 노상추의 생애사 또는 가족사라는 관점에서 6장으로 나누어 잘 소개하고 있다. 목차만 살펴봐도 노상추의 생애가 어떠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매우 잘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일기 연구의 새로운 전범을 제시했다는 점에 우리는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꿈을 무의식 속의 욕망이 표출되는 기제라고 판단하여 노상추의 생애를 복원하는 데 하나의 장으로 설정한 것도 신선한 시도이다.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은 꿈은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를 하나의 연구 주제로 삼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기의 주인공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서술하는 것은 이 꿈에 자신의 희망과 욕망이 투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꿈의 내용을 해부하여 노상추의 희망과 욕망, 그리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문장이 매우 간결하고 분명하여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독자에게 한층 잘 전달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눈으로 보는 듯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건의 대강을 나열하여 당시의 상황과 추이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의 소회 등을 피력할 때에는 호소력 있는 문장으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아주 건조한 문장으로 서술하여 독자들의 몰입을 유도한다. 내용이 전문적이고 학술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한번 잡으면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읽게 하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문장력에 있다.

그러나 비록 사소하지만 제목과 서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소회와 세계관>에서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은 노상추가 신분이나 사회 또는 정치 현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는데 이를 과연 세계관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세계관은 자연적 세계나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종합적이고도 철학적인 관점을 지칭하는 것인데 노상추가 일기에서 언급한 신분이나 사회 및 정치 현실에 대한 몇몇 단편적인 견해를 과연 세계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또 6부

「은퇴하여 다시 집으로」의 경우, 기술된 내용 중에 노상추가 관직생활을 하다가 벼슬이 없을 때 고향으로 돌아와 종족과 지역공동체 등에 참여하고 살 집을 짓는 일 등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은퇴’ 이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제목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쉽게 생각했던 점들을 언급하고 서평을 마무리하겠다. 첫째, 노상추의 연보(年譜)를 부록으로 제공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 책은 노상추의 생애에 관한 글이다. 그래서 글을 읽다가 그가 어느 한 시점에 무슨 일을 했는지 혹은 어느 관직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연보가 제공되지 않아 궁금증을 풀 방법이 없었다.

둘째, 세계도나 지도 등을 더 많이 제공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세계도가 한 곳(52쪽)에, 지도가 두 곳(98쪽과 108쪽)에 제시되긴 하지만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였다. 이 책이 전문적인 연구자보다는 일반 대중을 겨냥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세계도나 지도 등을 첨부하는 것이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릴 것이라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대중의 수준도 크게 제고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해두었으면 한다. 더불어 노상추의 선대 가계도나 방계 가족에 대한 세계도 등이 추가되었더라면 글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 책에는 그가 살았던 인근 마을이나 고을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지도가 첨부되었더라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관련 원문이 주(註)에 수록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저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노상추일기』에서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기의 해당 날짜만 밝혀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책은 비매품이어서 전문연구자들조차 쉽게 구득할 수 없으며, 또 궁금한 한두 부분의 원문을 확인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빌려 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비록 책의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후주(後註)에 관련된 원문을 제공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넷째, 색인이 제공되지 않아서 매우 불편하였다. 전공 서적도 아닌데 무슨 색인까지 첨부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책은 노상추가 살았던 68년간의 긴 기간, 아니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과 손자에 대한 이야기가 얹혀 있어 100년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읽다가 간혹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색인이 제공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일반 대중을 겨냥한 책이라 하더라도 색인을 첨부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켜주었으면 한다.

다섯째, 이 책이 일반인을 겨냥한 것이라면 참고문헌이나 더 읽을거리 등을 소상하게 제공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연구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공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떤 책이나 논문을 읽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더 살펴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일반 대중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호기심이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조선후기 사회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거나 혹은 책을 읽는 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고 싶어 할 것이다. 관련된 읽을거리에 갈증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참고문헌이나 더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면 독자들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를 배려하는 섬세한 마음이 조금은 아쉬웠다. 이러한 점들은 대부분 출판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일기 연구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주목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다음 연구가 무척이나 기대된다.